

백종원 리스크에... 손잡은 지자체 사업까지 '불뚱' 우려

강진·장성 등 전국 14개 지자체 '민관협력 지역발전' 공동성명 장성군,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중지...강진군은 협약 유지

백종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잇단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지를 선언한 가운데 강진과 장성 등 백종원과 지방 살리기 협업을 나선 지자체단체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민관협력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목 홍성군수와 최재구 예산군수, 허창덕 금산부군수, 강영석 상주시장 등 4개 지자체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코리아와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장'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과 비난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성명에는 전남 강진·장성을 포함해 강원 정선·인제, 충북 음성, 전북 남원·경북 안동, 경남 통영·창녕 등 전국 14개 지자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축제 주주 및 컨설팅 용역 비용으로 수억대의 수익을 얻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근거 없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라며 "위기에 빠진 지역의 절박한 현실 속 민관협력은 여전히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민과 관은 갈등의 대상이 아닌 지역 발전 동반자 ▲무분별한 비난은 사회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행위 ▲민관협력의 성과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전남에서는 강진과 장성이 백종원 더불어민주당과 각각 협약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과 협약해 110억원 규모의 '남도맛 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사

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강진읍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특히 강진읍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동 내 빈 점포를 외식업 특성과 부스로 리모델링해 강진 수산물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개발·제공해 창업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성군도 앞서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5대 맛거리 조성하고 음식문화콘텐츠 개발을 약속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기대를 했는데, 군은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전통시장의 브랜드를 분석·접목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자체의 대응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민관협력이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혹여나 차질 생길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개발원에 발주했던 황룡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최근 중지했다. 해당 용역은 9678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6월까지 늦춘 상태다.

강진군 역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업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약이 유지되고 있고, 사업에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사업 시기와 방법 내용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극복방안을 찾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오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6시간만에 중지

비서실·안보실 대상...회의자료·출입기록 등 제출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약 6시간 만에 집행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5시30분경 집행 중지됐으며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경 영장을 제시하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해 일단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통화했던 '02-800-7070' 번호의 서버기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등록된 해당 번호는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 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 주진우 당시 비서실 법률비서관(국민

의힘 국회의원)에게 전화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했는데, 공수처는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한국인 55% '장기적 울분 상태'...40대·저소득 심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설문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는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 '좋다'는 11.4%였다. 5점 척도로 따지면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좋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원인으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3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타인·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22.3%)였다.

연구진이 자가측정 도구로 주요 감정과 정서 상

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2.5점 이상)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54.9%는 울분의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1.6점 이상)였다.

한국의 정치·사회 사안별로 울분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입법·사법·행정부의 비리나 잘못은 언제든 울분을 느꼈다는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85.2%),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된 의료·환경·사회 참사'(85.1%) 등이었다. 응답자의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의 경험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다. 월 소득 수준과 스트레스 경험 비율은 반비례했는데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58.8%였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경험 비율은 낮아져 1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38.7%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나만의 정원여행...남도 19개 정원코스 추천

전남도, 전국 최초 선정

전남도가 남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19개 정원 코스를 선보인다.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달인 5월과 맞물려 정원 코스를 선보임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남도는 7일 '남도의 멋과 풍류를 담은 다양한 정원을 여행하는 '남도정원 산책' 코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남도정원 산책 코스는 총 19개로 '전통정원', '캠핑' 등 선호하는 형식의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테마코스 5개와 정원이 많이 조성돼있는 담양, 구

례, 해남 등을 둘러보는 '지역코스' 13개, 전남의 주요 정원을 모두 둘러보는 4박 5일 '장기코스' 1개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올해 가을 개원 예정인 전국 최초의 정원 전문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과 함께 1년여간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코스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국가정원인 순천만 정원 외에도 지방정원 2곳, 민간정원 30곳, 전통정원 3곳 등 다양한 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관광객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남도정원 산책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

광플랫폼(JN TOUR)를 통해 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원투어 코스를 안내한다. 관광객이 여행하고 싶은 테마별 정원코스를 선택하면 정원의 특징과 주변 정원들과 연계한 여행 코스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국립정원문화원도 '남도정원, 숨과 풍경을 잇다'를 주제로 대학생 위주 정원 투어를 추진할 예정이며, 정원 투어 운영회사인 '월간 가드닝'에선 다양한남도정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등 "나만의 힐링을 위한 정원여행을 꿈꾸신다면 신록이 가득한 5월남도정원 여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